

로어본문에서 언어적단위들의 선택과 조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오 필 건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입장과 관점을 옳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서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문제는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29페이지)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서 그 사람이 어떤 입장과 관점을 가졌는가 하는것은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말을 하고 글을 쓴다고 할 때 그것은 본문을 작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본문을 작성할 때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현실자료를 선택하며 그에 따르는 언어자료들을 리용한다.

본문작성자가 주제를 설정하고 현실자료와 그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언어자료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언어사용조건, 언어사용환경 및 그 영역, 문체와 장르, 문학작품인 경우 문학적경향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로어의 언어적단위들을 선택하고 조직하는데 영향을 주는 기본요인으로 언어사용조건과 언어사용환경 및 영역을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먼저 언어사용조건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언어교제는 언어사용을 통하여 실현된다.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통보의 기능, 작용의 기능 등과 같은 그의 여러가지 기능들도 실현되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는 정서적기능도 실현되게 된다.

구체적인 언어사용조건들 가운데서 언어를 사용할 때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세가지 조건 즉 《무엇이 통보되는가?》, 《누가 통보하는가?》, 《누구에게 통보되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무엇》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제를 의미하며 《누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저자를 의미하게 된다. 주제와 그에 대한 저자의 관계는 본문의 내용과 그 언어적표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세번째 조건으로서의 《누구에게》도 본문에서 언어적단위들을 선택하고 조직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누구》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혹은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나타낸다.

실례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과학자가 과학토론회보고서(좁은 범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를 쓴다고 하자. 그리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 학자가 통속과학잡지에 낼 기사(넓은 범위의 독자대중을 대상으로)를 쓴다고 하자. 이때 보고와 잡지기사에 쓰이는 언어적수단들은 서로 차이난다. 기사에는 전문용어들이 적고 서술이 보다 전개되며 예술적형상을 위한 비교나 기타 수단들이 리용되게 된다.

다른 실례로 학생이 수업에 왜 빠졌는가를 선생님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경우와 자기의 친구에게 이야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여기에서는 한 대상(학생)에 대한 원인(수업에 왜 빠졌는가)에 대한 설명이므로 《무엇》과 《누구》는 같고 《누구에게》는 다르다. 이 두 경우 언어자료선택과 조직은 차이나게 된다.

례: Сестре:

«Мармонтель, Томас и еще некоторые ходят ко мне в дом; люди умные, н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ввали» (《마몬텔과 토마스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이 내 집에 다니군 한단다. 그들은 령리한 사람들이기는 하나 대부분이 다 능청스러운 거짓말쟁이들이란다.》)

Папину:

«Томас, сочинитель переведенного мною похвального слова Марку Аврелию, Мармонтель и еще некоторые ходят ко мне в дом. Весьма учтивое и приятельское их со мной обхождение не ослепило глаз моих на их пороки.» (《내가 번역한 훌륭한 이야기 〈마르카 아브렐리아〉의 창작가인 토마스와 마몬텔 또 일부 사람들이 나의 집에 다니곤 하네. 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아주 각뚱하고 우정적이지만 나는 그들의 결함을 못본척 하지 않네.》)

우의 실례의 첫 본문은 저자가 자기 누이에게 보낸 편지이며 둘째 본문은 빠뻔이라고 부르는 백작에게 써보낸 편지이다.

첫째 본문에 있는 некоторые, люди, умные, большая часть는 중성체어휘들이며 враль은 회화체어휘이다. 그리고 ходить ко мне в дом과 같은 결합은 회화어에 특징적인 문장론적결합이다. 저자는 본문에서 이러한 일상회화어에 특징적인 어휘들과 문장론적구조들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처럼 첫 본문에서 저자(《누가》)와 수신인(《누구에게》)사이에 아무런 구속감도 없다는것이 선택된 어휘와 문장론적구조들을 통하여 나타나고있다.

둘째 본문에서 저자는 учтивый, ослепить 등과 같은 공식적이고 형상적인 어휘들과 переведенного мною похвального слова, приятельское их со мной обхождени와 같은 행동사구 및 형용사구, не ослепило глаз моих на их пороки 등과 같은 서사어에 특징적인 문장론적구조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편지를 쓴 저자와 수신인인 빠뻔은 서로 아는 사이이지만 편지에 사용된 어휘들과 문장론적구조들을 보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무엇을-누가-누구에게》라는 조건에 대하여 말할 때 중요하게 지적하여야 할것은 객관적인 현실과 문학작품에서의 형상에서 이 조건들을 구별해보아야 한다는것이다. 실례로 교원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정황은 계속 반복된다. 즉 강의의 주제(《무엇》) - 강사 (《누가》) - 학생독자 (《누구에게》)라는 정황이 반복되여 나타난다.

При моем появлении студенты встают, потом садятся, и шум моря внезапно стихает. Наступает штиль.

Я знаю, о чем буду читать, но не знаю, как буду читать, с чего начну и чем кончу, в голове нет ни одной готовой фразы. Но стоит мне только оглядеть аудиторию и произнести стереотипное «в прошлой лекции мы остановились на...», как фразы длинной вереницей вылетают из моей души и - пошла писать губерния!... Чтобы читать хорошо, то есть нескучно и с пользой для слушателей, нужно, кроме таланта, иметь еще сноровку и опыт, нужно обладать самым ясным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о своих силах, о тех, кому читаешь, и о том,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предмет твоей речи. Кроме того, надо быть человеком себе на уме, следить зорко и ни на одну секунду не терять поля зрения. ...

Пердо мною полтора лица, не похожих одно на другое, и триста глаз, глядящих мне прямо в лицо. Цель моя - победить эту многоголовую гидру. Если я каждую минуту, пока читаю, имею яс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тепени ее внимания и о силе разума, то она в моей власти. Другой мой противник сидит во мне самом. Это

– бесконечн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форм, явлений и законов и множество ими обусловленных своих и чужих мыслей. Каждую минуту я должен иметь ловкость выхватывать из этого громадного материала самое важное и нужное и так же быстро, как течет моя речь, облекать свою мысль в такую форму, которая была бы доступна разумению гидры и возбуждала бы ее внимание.

[내가 나타나면 학생들은 일어섰다 앉으며 그러면 소음바다는 일시에 가라앉고 무풍이 도래한다.

나는 무슨 강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있으나 어떻게 강의를 하며 무엇부터 시작하여 무엇으로 끝내야 하는지 모른다. 머리속에는 문구 하나 제대로 준비된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행렬처럼 긴 문장이 나의 내심속에서 날아나오듯이 《전번 강의에서 우리는 …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라는 판에 박힌 말을 해야만 한다. 참 야단이다! 강의를 잘하자면 즉 따분하지 않고 청중들에게 있어서도 호감을 가지게 하자면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숨씨가 있고 경험도 있어야 하며 자신의 힘에 대한 명확한 표상 그리고 누구에게 강의를 하며 자기가 하는 말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명확한 표상을 가져야 한다. 그밖에도 정신을 차리고 예리하게 살피며 순간도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앞에는 모색이 서로 비슷하지도 않은 150명이 앉아있고 300개의 눈은 내 얼굴을 뚫히 쳐다보고있다. 나의 목적은 이 히드라(머리가 여러개인 뱀. 괴물)를 이기는 것이다. 만일 내가 강의를 하는 매 순간 그의 주의력정도와 리해력에 대한 명백한 표상을 가진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나의 다른 적은 내자체

내에 있다. 이것은 무수한 형식과 현상, 법칙들이며 그것들에 의하여 제약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이다. 매 순간 나는 이 괴물로부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포착하는 숨씨를 가져야 하며 내가 말하는것처럼 재빨리 자신의 생각을 괴물이 리해할수 있는 그리고 그의 주의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실례의 본문은 아. 체호브의 증편소설 《따분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정황에 대한 묘사이다.

본문에서는 주제(《무엇》)가 일반화하여 제시되었으며 교원(《누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징지어졌다. 즉 《누구》는 교수인 니콜라이 스페빠노위치이며 《누구에게》는 대학생청중이다.

실례본문에서는 선택되어 사용된 어휘표현들과 문장론적구조들은 매일과 같이 같은 독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는 교원의 심리상태, 지루하고 따분한 심리상태를 극복하고 강의를 참신하고 새맛이나게 잘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형상적으로 묘사하고있다. 다시말하여 학생들의 기분상태, 그들의 하나하나의 몸가짐상태, 표정 등을 놓치지 말고 장악하고 그에 맞게 림기응변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студент, садиться, стихать, читать, писать, начать и кончать, готовая фраза, слушатель 등과 같은 교육부문에서 널리 리용되는 어휘들과 штиль, сноровка, бесконечн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облекать, возбуждать, многоголовая гидра 등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에서 많이 쓰이는 형상적어휘표현들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반복의 수법(Я знаю, о чем буду читать, но не знаю, как буду читать), 대조의 수법(с чего начну и чем кончу), 비교의 수법(шум моря, победить эту многоголовую гидру), 열거의 수법(Это – бесконечное раз-

нообразие форм, явлений и законов и множество ими обусловленных своих и чужих мыслей) 등과 같은 표현문체론적 수단들과 수법들을 적극 리용하여 본문을 조직하였다.

이 모든 언어적수단들과 수법들은 작가의 형상에 복종되어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언어사용의 환경과 영역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언어사용의 세가지 조건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언어사용은 항상 일정한 환경과 영역에서 진행되게 된다. 이것은 본문에서 언어적단위들을 선택하고 조직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언어사용환경은 언어가 사용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언어사용영역은 사람들의 언어활동분야를 의미한다.

언어사용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교제환경 즉 전인류적인 교제환경, 민족간 교제환경, 민족내에서의 교제환경으로 구분한다. 민족내에서의 교제환경은 다시 지역적교제환경, 집단내에서의 교제환경, 가정적교제환경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적교제환경에서는 지역적방언이, 사회적 및 생산활동의 교제환경에서는 사회적 및 직업적방언이 사용된다.

해당 교제환경을 잘 아는것은 본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본문이 해당 사용환경에 맞게 언어적단위들을 선택하여 조직한 언어행위의 결과물이기때문이다.

언어사용분야도 크게 세가지 분야로 나눌수 있다.

첫째로, 전문분야의 주제와 련관되지 않은 구속이 없는 직접적인 교제분야, 둘째로, 엄격히 제한된 주제의 범위내에서의 교제분야, 셋째로, 정서적으로 제약된 언어사용분야이다.

첫째 경우에는 회화어, 둘째 경우에는 전문언어, 셋째 경우에는 문학예술언

어가 쓰인다.

전문언어는 과학 및 공식사무언어, 정론언어로 갈라볼수 있다. 정론언어에서는 신문보도언어를 따로 갈라볼수 있다.

정서적으로 제약된 언어사용분야 즉 문학예술언어분야외에 두가지 기본분야 즉 공식언어사용분야와 비공식언어사용분야로 갈라볼수 있다.

비공식언어사용분야에서는 각이한 변종형태의 회화어가 사용되며 공식적언어사용분야에서는 각이한 변종형태의 표준어들(기능문체)이 사용된다.

례 ①: А. Проголодался? (배고프지 않니?)

Б. А? (영?)

А. Проголодался? (배고프지 않니?)

Б. А? (뭐라구?)

А. Проголодался? (배고프지 않나 말이야?)

Б. Не-ет.// (아니.)

А. Какой-то ты голодоустойчивый человек.// (넌 배고픈것도 꽤나 잘 견디누나.)

Б. (смеется) (웃는다)

А. Ну/ сейчас будем (обедать). (그럼 우리 이제 (점심을) 먹자.)

А. (Приносит обед.) (식사를 가져온다.)

А. Обедаем? (먹을가?)

Б. Угу.// (응.)

②: Археологи обнаруживают остатки древних поселений, раскапывают старые захоронения, находят там различные вещи, которые служили когда-то людям. Эти вещи реальны, конкретны, их можно пощупать, осмотреть, изучать. А где «копать» лингвисту? Правда, у лингвиста есть древние рукописи. Но письмен-

ность возникла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а как проникнуть сквозь тьму веков, заглянуть в те времена, когда люди не имели письменности?

(고고학자들은 고대의 주민지대유적들을 찾아 옛무덤들을 파헤치며 거기서 언젠가는 인간에게 복무하였을 각이한 물건들을 찾고있다. 이 물건들은 각이하고 구체적이며 그것들은 만져볼수 있고 보며 연구할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학자는 어디를 파헤쳐야 하는가? 물론 언어학자에게는 고대의 문서가 있다. 그러나 문자는 생겨난지 얼마 오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암흑의 시대를 뚫고 들어가 사람들이 문

자를 가지지 못했던 시기를 들여다보아야 하는가?)

실례 ①은 전문분야의 주제와 연관되지 않은 구속이 없는 직접적인 교제로서 회화체 본문에 속하고 사용영역은 일상생활분야이며 가까운 두 친구가 일상생활주제를 가지고 구속이 없이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대화이다.

실례 ②는 제한된 주제의 범위내에서의 교제로서 과학문체의 본문이다. 실례 ②의 사용분야는 교육, 교수분야로서 과학적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본문이다.

우리는 언어사용조건과 언어사용환경을 비롯한 언어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외국어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